



‘제대로 된 후보 누구?... 표심 오늘 결정

18대 총선을 하루 앞둔 8일, 막판 표발같이 나온 후보자들을 바라보며 손을 모은 유권자들의 얼굴 표정에서 ‘이번에야말로 선거를 통한 정치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간절한 기대가 엿보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총선을 하루 앞둔 8일 정치권의 관심은 벌써 선거 이후 정국 구도로 모아졌다. 이번 총선의 성적표에 따라 한나라당이 행정 권력에 이어 의회권력까지 장악함으로써 강력한 국정주도력을 갖는 명실상부한 ‘여대야소’ 정국이 도래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강한 견제야당으로 재탄생해 정치세력 간 ‘힘의 균형’을 확

총선 후 정국 시나리오

거대 與... 견제 野... 권력 지형도 요동칠 듯

◇한나라 '168석 이상', 민주당 '90석 이상' = 양 당 모두 성공한 총선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한나라당은 과반만 되면 성공한 것이라는 엄살을 부리고 있으나 당 내부에서는 160석은 충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견제 바람'이 선거 당일 날 불지 않는다면 170석 이상 달성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한나라당은 행정과 지방권력에 이어 의회권력까지 장악함으로써 그야말로 한나라당 의도대로 정국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 168석 이상 확보면 MB노믹스 발판 마련 민주당 80석 내외 제 1야당 존재 확인·역할 확보

= 양 당 모두 성공도 실패도 아닌 평균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한나라당은 비록 모든 상임위 과반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전체 의석 과반을 확보, 의회에서 정국을 확실히 주도하게 된다. 민주당도 총선 초반 60석 예상보다는 나아진 성적으로 비록 선거 막판 여권의 힘에 밀려 '민주당 바람'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제1야당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을 만족할 정도의 의석으로는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과반 실패', 민주당 '100석 이상' = 선거 막판 수도권에서 민주당 바람이 거세게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 시점에서

보할 수 있는지가 갈리는 것이다. 각 당의 시각에 따라 승패의 기준이 달라지겠지만 한나라당의 승리 기준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168석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과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90석 내외의 성공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턱걸이 과반', 민주당 '100석 이상' = 민주당은 성공했지만 한나라당은 아쉬운 성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국은 여야간 팽팽한 '힘의 균형' 상태가 될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여대야소'지만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7대 총선 때 152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을 만든 열린우리당이 '과반 유지'나, 붕괴냐의 불안한 줄타기 속에서 정국 주도권을 한나라당에 고스란히 내준 전례가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숨은 표심’ 5% 승부 가를까

여론 조사때엔 표심 안 밝혀 양당지도부 “의외의 결과” 긴장

총선을 하루 앞둔 8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모두 전문가들의 분석과 달리 예상 외의 부진한 성적을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과반에 못 미치는 경우를, 민주당은 의석수가 70석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각각 걱정하는 것이다. 이는 ‘숨어 있는 5%’를 상대방 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숨어 있는 5%’= 여론조사나 출구조사 때 표심을 일부러 숨기는 일부의 경우를 지칭한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경우를 3~5% 수준으로 보며 조사 때 나타나지 않다가 실제로 개표 때 공개되면서 승패 예측을 뒤집어 버린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지난 1996년 15대 총선 때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는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과반 의석인 175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결과는 139석이었던 것이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KBS·SBS의 공동 출구조사가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1당이 됐다. 또 방송사

들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도 열린우리당 의석을 최대 180석까지 예상했지만 152석에 그치고 당초 100석 정도 예상했던 한나라당 의석은 121석이나 됐다. ◇이번에도 야당 표일까= 민주당의 선전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과거의 전례를 들어 이번 ‘5%’는 민주당 표로 예상한다. 한나라당은 과반에 못 미치는 경우를, 민주당은 의석수가 70석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각각 걱정하는 것이다. 이는 ‘숨어 있는 5%’를 상대방 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숨어 있는 5%’= 여론조사나 출구조사 때 표심을 일부러 숨기는 일부의 경우를 지칭한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경우를 3~5% 수준으로 보며 조사 때 나타나지 않다가 실제로 개표 때 공개되면서 승패 예측을 뒤집어 버린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지난 1996년 15대 총선 때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는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과반 의석인 175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결과는 139석이었던 것이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KBS·SBS의 공동 출구조사가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될 것으로 보였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1당이 됐다. 또 방송사

■ 각 당이 보는 총선 승패

여야 각 당이 보는 총선 승패의 기준점은 어디일까. 한나라당의 승패 기준은 일단 과반 의석(150석) 획득 여부다. 강재섭 대표는 8일 기자회견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면 승리하는 것”이라면서 “한 정당이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게 승리지 뭐가 승리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170석 안팎의 절대 과반의석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방호 사무총장은 안정 과반의 의석수로 168석을 제시한 바 있다. 총선 결과 한나라당이 170석 안팎을 거둘 경우 대승이라는 평가가 나오겠지만, 과반을 갖 넘기는 결과를 얻을 경우 당내 친

한나라 150석 확보 못하면 ‘패배’ 민주당 100석 달성하면 ‘승리’

선진당 교섭단체·민노당 원내 진입 기준점 삼아 이-친박간 세력 갈등을 감안할 때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통합민주당의 선택은 좀 더 복잡하다. 민주당은 당초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목표 의석수로 정했다. 하지만 관계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 내부적으로는 80석 안팎이라도 확보할 경우 다행이란 예

기갑(사천) 후보 등 최대 2석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4~6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5~8석 정도의 의석만 얻으면 총선 책임론은 크게 대두되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반대는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진보신당은 지역구에서 노회찬(노원병), 심상정(고양덕양강) 후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대 2석까지 얻을 수 있으나, 최악의 경우 1석도 못 건질 수 있다. 친박연대는 지역구와 비례를 포함해 전체 10석 정도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지역구와 비례 4석씩 8석 이상만 얻으면 선전한 것으로, 5석 이하면 부진한 것으로 평가의 기준점을 잡고 있다. 이 밖에 창조한국당의 경우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에 맞서 문국현 대표가 출마한 서울은 평을 당선 여부가 승패의 기준이다. /연합뉴스

흰색-지지 후보, 연두색-지지 정당 찍어야

투표용지 혼동하지 마세요 9일 실시되는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난 17대 총선과 같이 1인2표제가 실시된다. 자신의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에 1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투표소에서 흰색과 연두색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흰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후보자를 찍고, 연두색 용지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각각 찍으면 된다. 지지 정당은 자신이 찍은 지역구 후보

의 소속 정당과 달라도 무관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대한 투표표를 ‘일치’시킬 생각이 있는 유권자라면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표기된 정당 기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선관위가 정당별 의석수나 직전 선거 투표율 등을 근거로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에 각각 공통기호 1~5번을 부여하고, 이들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도 다른 정당 후보들은 이 기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제2회 항공평라이너스티CC 허브축제
1. 1부 내장객 전원 콘서트, 허브축제 운영
2. 클럽하우스 및 코스 허브 축제
3. 시골시 바프팅 운영
4. 레스토랑 및 탁자 허브축제
예약문의 : (06)1320-7700, 7714